

## (주)한국법률정보시스템 - 「KOLIS 법률정보」

# 국내최초의 법률데이터베이스 「KOLIS」

법의 테두리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법과 관련된 정보에 목말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출판물로는 접근하기 매우 어렵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를 얻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이런 점에 착안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률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를 DB로 구축하여 PC를 통해 온라인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보서비스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곳이 있다.

(주)한국법률정보시스템

### 해방이후 3만여건의 판례정보 DB화

20여년동안 법률관련서적(판례월보, 판례총람, 법전등)을 전문 출간해온 청림출판사의 계열회사로 출판사업에서 얻은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 국제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정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 판례(判例), 및 법령(法令), 법률상담(法律相談)등의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현재 판례정보 사회가 점차

복잡다단해지면서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2천4백여 일선 변호사와 2천2백여명이 넘는 판검사들조차 특정사건이 발생할때마다 관련 판례를 찾기위해 불편함을 무릅쓰고 방대한 관련서적을 뒤적거린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 해방이후 3만여건의 각종 판례를 수집해 사건번호, 판결요지, 판결문 전문에 대한 DB를 구축, 그때그때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판례정보시스템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등 각 분야 전문가와 컴퓨터 전문가가 공동으로 국내외 법률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한후 약5년여에 걸쳐 노력한 끝에 탄생되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1945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사, 형사, 행정, 특허, 세무, 가사의 공간된 판례를 대법원 및 고등법원 등 전심급에 걸쳐 수록하였다. 물론 새로운 판례가 생겨날 때는 빠짐없이 추가한다.

판례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23가지의 검색항목을 갖추고 있다. 종래에는 선고법원과 사건번호가 주어졌을 경우 법원공보등에서 해당 판례

의 본문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조문을 알고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요지집에서 해당 조문의 판례들을 일람하여 원하는 판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판례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KOLIS판례정보는 선고법원, 선고년월일, 사건번호등 판례의 지정에 의한 검색방식과 법령 조문에 의한 판례검색 방식외에 실무분야, 법분야 코드등 색인코드 방식, 임의어(KEYWORD)방식등도합 23가지의 검색항목을 갖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 사용케 함으로서 실로 수십, 수백가지의 방법으로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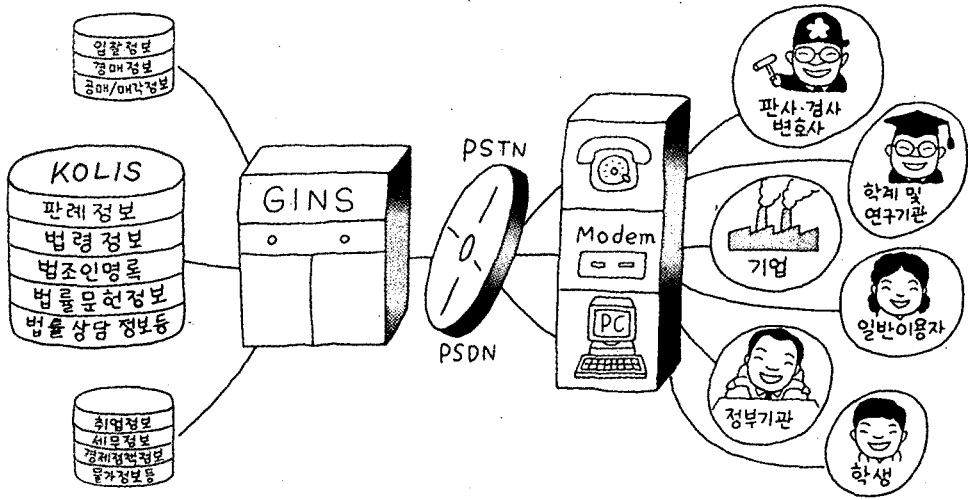
둘째, 1945년 이후 모든 판례를 전산화 하였으며,

셋째, 최신 판례까지 수록하고 있고,

네째, 판결의 요지 및 전문을 보여준다.

다섯째, 신속하게 판례를 찾을 수 있다.

여섯째, 법률전문가나 컴퓨터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법률뉴스, 법조인명록, 법정개정표도 DB화 서비스

각 분야 전문가들과 5년동안의 사전작업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실시중인 이러한 판례정보 서비스는 현재까지 2백50명의 회원을 확보중이다. 이밖에 법률뉴스, 법조인명록, 법정개정표등의 서비스를 이미 순차적으로 개설, 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정보검색방식은 판례정보 검색의 편리성과 실무적 요구를 반영한 KEYWORD 방식과 MENU 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각 검색시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판례정보시스템의 검색결과 출력형태는 화면표시(Dis-

play)되는 경우와 인쇄(프린트)출력 그리고 원문제공 서비스의 3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검색결과 출력순서는 년도별, 심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판례의 경우는 상표등 그림이 ON-LINE SERVICE에서 컴퓨터 통신기술상의 제약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판례 원문의 서비스를 요청시 해당판례의 원문을 FAX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는 원문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로는 앞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등의 법률전문가,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정부기관, 일반인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 관련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정보도서관(Information Library)이 될 전망이다.

### 금성정보통신의 통신서비스망인 「GINS」통해 제공

「KOLIS」 판례정보시스템은 사무실 또는 가정에 설치된 컴퓨터와 연결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KOLIS는 금성정보통신의 「GINS」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GINS정보의 초기화면 상태에서 GINS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선택한다. 법률정보의 초기화면(표1)은 한국법률정보시스템(KOLIS)이 제시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들어가는 KOLIS 법률정보 주메뉴 화면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정보서비스와 KOLIS통신서비스로 나누어지고 그 아래 “판례정보, 법률뉴스, 법조인명록, 법정개정표, 법가게시관, 토론광장, 사랑방(전자대화), 전자우편, KOLIS 운영자에게, KOLIS가 사용자에게”등 10가지로 세분된다.